



‘광주_아시아 건축국제대전’

28일~11월 2일 ACC 대나무숲 전시장



도시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아가 도시와 건축은 또 어떤 관계성을 지니고 있을까?

오늘날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주거문제 교통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 또한 도시의 성장과 맞물려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민주주의의 투쟁과 역사는 많은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하기도 했다.

도시와 민주주의, 건축의 관계를 다각도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사진> ‘2025 광주_아시아 건축국제대전_민주+건축’이 오는 28일~11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대나무숲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식 및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이번 건축대전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김종원),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김기준)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건축대전에서는 국제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기획전,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으로 구성됐으며 도시와 민주주의, 건축의 관계를 사유하고 구현의 모티브를 살펴볼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도시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식,

건축 역할을 탐색한 우수작 80여 점이 관객들을 맞는다.

지역의 건축 현안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 일명 ‘리버 & 시티(River & City) - 영산강 Y 프로젝트’. 전남대, 광주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산강을 토대로 한 도시의 미래를 건축 언어로 재구성했다.

주목되는 프로그램은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건축가들의 대표작들을 영상전시 형식으로 만나는 자리다. 다양한 국가 출신들의 건축가들이 풀어낸 시대정신과 미학적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다.

29일에는 전일빌딩245에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내 생태정원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경전문가 김봉찬이 ‘땅이 원하는 정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김기준 회장은 “이번 건축대전은 도시와 민주주의, 건축을 모티브로 상호 연관성 등을 탐구하고 건축문화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며 “사람과 문화, 역사 나아가 도시를 담아내는 건축의 종합적인 면들을 함께 사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예술단체 한소리회 단원들의 모습.

<한소리회 제공>

노래로 그리는 어머니...가장 위대한 사랑

한소리회, 25일 광주아트홀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한 이름, 어머니. 그리움과 헌신, 그리고 세월이 쌓인 사랑을 음악으로 그려내는 무대가 열린다.

한소리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친정엄마 음악회-가장 위대한 사랑, 엄마와 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5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모성과 세대를 잇는 사랑을 음악과 영상, 재즈 선율로 엮은 종합예술 무대다.

공연은 어머니의 인생 여정을 여섯 개의 장면으로 구성해 한 편의 음악드라마처럼 풀어낸다.

‘자장가’와 ‘엄마야 누나야’,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등 어머니의 어린시절을 조명하며 시작한 무대는 소녀 시절의 꿈을 노래한 ‘Danny Boy’, ‘오빠생각’으로 이어진다. 중반부에는 비틀즈 매들리와 ‘Dancing Queen’ 등 밝은 리듬이 더해져 청춘의 시절을 되살리고, 후반부에는 ‘얼굴’, ‘첫사랑’, ‘마중’, 그리고 푸치니 오페라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의 감정을 노래

한다.

마지막에는 ‘엄마가 딸에게’, ‘가족사진’, ‘아버지’ 등 가족과 세대를 잇는 곡들이 무대를 채운다. 음악은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듯 잔잔한 감동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총감독은 박미에 광주대 음악학과 퇴임교수, 피아니스트 장희경이 반주를 맡는다. 영상은 김지윤, 연주는 박영렬 재즈밴드(베이스 박영렬, 기타 오주석, 드럼 김지훈, 재즈피아노 황인선)가 함께한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박미에, 임영란, 유형민, 이윤순, 장은영, 장희정, 윤희정, 이현숙, 박정연, 한아름, 김주아, 조현서 등 활발히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출연해 세대와 감정의 결을 노래한다.

진행은 박정희, 초대가수 박소망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한소리회 기획실장 한은주는 “이번 무대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서사를 전하고자 했다”며 “음악과 영상, 재즈 선율이 어우러진 공연이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청년 문학동인 ‘공통점’ 10년만에 첫 시집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청년 문학동인이 첫 동인시집을 펴내 ‘화제’다.

동인은 지난 2015년 당시 대학생으로 구성된 시 창작 모임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동인시집을 발간한 것. 주인공은 시 창작 동인 ‘공통점’ (대표 신혜아림)

이들은 그동안 청년문학예술단체 ‘공통점’을 꾸린 것 외에도 단체 이름과 동일한 무크지 ‘공통점’을 5호까지 펴내는 등 창작과 관련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동인 이름 ‘공통점’은 ‘같은 통점(痛點)’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타인의 삶과 고통에 대한 공감을 차단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대하겠다”는 공동의 다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우리는 같은 통점이 된다’ (권는 사람)는 지역 청년 문학단체가 결성 10년 만에 펴낸 첫 동인시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 문학을 기반으로 전시와 낭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온 문화단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혜아림 대표는 “우리 동인은 느슨한 듯 내밀한 연대의식을 지닌 문학 공동체이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문화예술단체로 활동을 해왔다”며 “그동안 문학을 애호하는 청년 세대로 시작해 다양한 문학 행사와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인은 등단과 비등단을 구분하지 않고 유명과 무명, 중심과 지역 등의 경계 등도 초월한 문학을 지향해왔다”고 전했다.

참여 시인은 김도경, 김병관, 김조라, 신혜아림, 이기현, 이서영, 장가영, 조은윤 등 8명. 이들은 광주 또는 수도권 등에서 활동하며 인터넷으로, 또는 작품집 등으로 동인활동을 해왔다.

창립 멤버이자 2019년 문화일보신춘로 등단한 조은윤 시인은 “신혜아림 대표 등과 지난 2015년부터 모임을 꾸려 동인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시집은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방향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같은 통점이 된다’ 출간

광주 등서 활동...낭독회 행사도

“타인의 삶·고통, 문학으로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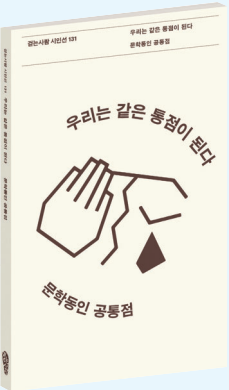
동인이 결성되고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이어온 비결에 대해 조 시인은 “시를 쓰는 공통점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시 창작을 바탕으로 시작한 만큼 시를 통해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주 원인인 것 같다”면서도 “같은 단체라고 해서 유대감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느슨한 연대감’을 통해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문학을 나눴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집은 모두 5개의 공동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저마다 생각하는 문학동인 공통점과 공동체에 대한 산문을 1편씩 게재했다.

각각 주제는 ‘공통점과 차이점’, ‘1990년대성의 정체성과 경험’, ‘서로에게 부치는 시’, ‘비경험 세대로서의 5·18’,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다. 시집의 기획과 해설은 동인으로 활동 중인 윤소현 기획자, 김원경 작가가 맡았다.

기본적으로 ‘광주’라는 지역을 토대로 출발했기에 ‘광주’와 연관된 작품들도 있다. 조 시인은 “우리가 5·18 이후 세대이지만 ‘광주’를 모티브로 한 시도 썼다”며 “90년대생으로서 공감하는 시의적인 내용 등도 작품에 담았다”고 언급했다.

해설을 쓴 김원경 작가는 이번 시집에 대해 “불



완전한 고백, 머뭇거리지는 말 걸기, 침묵은 모두 느슨한 연대를 향한 조심스러운 몸짓”라고 설명했다.

시집 뒤표지에는 공통점 동인과 인연이 깊은 두 시인, 나희덕 시인과 김소연 시인의 추천사가 실렸다. 공통점 원년 구성원의 은사이

기도 한 나희덕 시인은 이들을 향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힘겹게 부대끼면서도 시가 내준 질문과 숙제를 내려놓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나 시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서울 과기대 문창과 교수로 있다.

공통점의 출발점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격려해 온 조력자 김소연 시인은 “시인의 여러 요건들을 이미 넉넉하게 갖추고 있어서 어떤 종류의 조언도 무색했다”면서 이번 시집을 “두터운 과거를 선명히 되살리고 미래를 경유해 부메랑처럼 현재로 되돌아오는 언어들”이라고 설명했다.

동인들은 작품집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12인용 승합차를 렌트해 친구들을 몽땅 차에 태우고 작은 동산에 데려가는 상상”(‘작은 동산’)을 하는 김조라의 산문처럼, 서울과 광주에서 낭독회와 전시를 열 예정이다.

한편 공통점은 지난 2023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 ‘시 낭독의 예술적 가치 연구’를 수행했다. 시 낭독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로 발간한 낭독시집 ‘월자낭독공간’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2024년 문학나눔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의 앞으로의 계획도 기대된다. 동인들은 “첫 동인시집 발간이 독자들을 만나는 통로로서 뿐 아니라 향후에도 멤버들이 꾸준한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근대감성 무도회-어느 가을날의 신여성’

25일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서양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이 처음으로 배움의 길에 나섰던 1900년대 초 양림동. 근대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광주여성길’에서 신여성의 삶과 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5 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에서 ‘근대감성 무도회-어느 가을날의 신여성’을 연다.

근대 여성의 삶과 문화를 테마로 한 이번 행사는

‘광주여성길’ 도보투어 참가자들을 위한 체험형 문화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광주여성길’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근대여성 역사탐방로로, 두류길·백단심길·홍단심길 세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는 이 길을 따라 걷는 참가자들이 근대 여성의 삶과 감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근대여성 체험, 근대 음악 공연과 해설이 어우러진 액티비티, 선교사 디지털 ‘피칸과이’와 차 시음, 핸드페인팅 전시 만들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광주 근대 여성사 속 인물인 서서평·김

필레 등으로 분한 해설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1900년대 초 광주의 문화와 시대상을 체험하게 된다.

행사 후에는 SNS 인증 이벤트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어간다.

참여 신청은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문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운영사업팀 또는 킬러브릿지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광주의 근대여성사를 걷는 여정이 시민들에게 과거의 감성을 현재의 일상으로 이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수하갤러리 ‘광주국제아트페어’ 참여

김대원 작가 ‘옛날 옛적에’ 시리즈 등 출품

수하갤러리가 오는 23~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가 김대원 작가의 대표작과 주요 시기별 작품들이 출품된다. 김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온 ‘옛날 옛적에’ 시리즈를 비롯해, 전통 수묵의 깊이와 현대적 색채를 결합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김 작가는 그동안 호랑이, 인물, 자연을 모티프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환기하는 작업들을 펼쳐왔다. 이번 작품작 중에는 대작 ‘LOVE- 짝은 농염’ (285.5×387cm)을 비롯해 지난 1998년에 제작된 ‘윤회’, 그리고 최근 완성된 ‘호남의 정자 스케치’ 등 다양한 시대의 대표작이 관

객들을 만난다.

‘LOVE- 짝은 농염’은 강렬한 적색과 농묵의 대비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농도를 형상화한 초대형 회화로, 김대원 작가의 색채 감각과 조형적 에너지가 집약된 작품이다. 1998년 호랑이의 해에 제작된 ‘윤회’는 작가의 상징적 모티브인 호랑이를 통해 생명과 순환의 세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원을 이루며 맞서는 형상을 통해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 순환하는 존재의 질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감꽃 향기’, ‘기억의 숲’과 같은 ‘옛날옛적에·호랑이’ 연작은 작가 특유의 따뜻한 정서와 한국적 미



‘윤회’

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수하갤러리는 지난 2024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참여에 이어, 올해 국제아트광주25 무대에서도 지역 예술가의 창작성과 광주의 미학적 정체성을 알리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